

# 소련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ㅋㅋㅋㅋ

○○

매주,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는 ‘공산주의 역사이야기’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전: 교수님, 우리가 소련의 소비 생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1960-70년대 소련에서 인기 있는 소비품이 있었을까요?

란코프 교수: 네 있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은 수만 년 전부터 인간 사회의 기본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얻기 어려운 물건을 가지게 되면 이 물건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태도를 자본주의 사회의 나쁜 경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질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자신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싼 물건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전: 교수님, 어떤 것들이 개인의 부를 과시하는 소비 제품이 있었을까요?

란코프: 먼저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냉장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 소련에서 냉장고는 많이 본격화되고,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홍미롭게도, 소련산 냉장고는 품질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소련에서 세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가전 제품은 냉장고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전: 교수님, 제가 듣기로 1960년대 모스크바에서는 텔레비전 때문에 화재가 참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만큼 가전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냉장고는 예외였던 모양이네요.

란코프: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소련 텔레비전은 가끔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냉장고는 훌륭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1980년대 산 냉장고는 25년 동안 잘 썼습니다. 우리 집은 1990년대 말 러시아에서 오스트랄리아로 이사 갔을 때도 옛날 소련산 냉장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

전: 교수님, 흐루쇼프가 지은 집들에는 위생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었나요?

란코프: 물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가족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받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위생실과 목욕 시설, 요리 시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흐루쇼프의 주택사업의 기본 목적입니다. 소련 인민이면 누구든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교수님, 흐루쇼프는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수량의 집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나 자재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란코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을 새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수백 개 수천 개씩 지었습니다. 건축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기술자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건설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자 몇 명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벽돌로 만든 건물도 있었고 조립식 세멘트 건물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전: 도시 계획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많은 집을 짓는데 충분한 도시 계획이 있었을까요?

란코프: 대체로 잘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버스나 무레도 전차를 잘 부설했고, 상점을 비롯한 생활 시설도 지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흐루쇼프가 지은 집들은 멋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 간부나 유명한 배우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스팔린 시대에 비하면 꿈과 같은 생활입니다.

전: 새로 지은 주택들은 어떻게 인민들에게 분배 됐나요?

란코프: 흐루쇼프 시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배정 받을 수도 있었고, 다니는 기업에서 배정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스팔린 시대보다 하늘 땅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팔린 시대 평백성 90-95%는 자기 가족끼리 사는 주택을 받을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전: 흐루쇼프가 지은 주택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란코프: 오늘날까지 아주 많습니다. 저도 모스크바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바로 흐루쇼프 시대 지은 주택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족과 같이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냥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로 귀국한다면 그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집 자체는 작는데, 저와 우리 부인하고 둘만 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층이어서 승강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 교수님은 1963년에 소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고등중학교를 다니실 때 레닌그라드 일반 상점에서 무엇을 사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레닌그라드 상점에 간다면 아무 때나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란코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40년대 이후 소련이 제일 어렵게 살았을 때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레닌그라드 뿐만 아니라 멀고 먼 시골에서도 밥, 빵, 쌀, 감자 그리고 말린 국수는 소련 전국 어디든지 값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레닌그라드에는 우유도 있었고 유제품도 있었습니다. 치즈는 1970년대 초 많이 있었지만 1970년대 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빠다도 조금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골에서 우유는 있었지만 빠다나 다른 유제품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탕가루, 알사탕도 초콜렛도 있었습니다.

전: 고기는 어땠을까요? 구하기 어려웠나요?

란코프: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이면 돼지고기는 보통 상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 공산주의 시대 고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에게 먹는 고기입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우지 않는데, 키운다고 해도 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련 시대에도, 러시아 시대에도 고양이에게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에서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소고기까지 가끔 있었는데, 품질 문제 뿐만 아니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인민들이 직장에서 돌아온 늦은 시간에 상점에 고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 생선, 물고기는 어땠을까요?

란코프: 큰 도시이든 멀고 먼 시골이든 충분히 있었습니다. 참치나 연어와 같은 고급 물고기가 아니지만, 명태나 낙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련 냉장 기술의 발달과 별 관계 없습니다. 소련 시대도 러시아 시대도 물고기는 별 인기가 없습니다. 물론 고급 물고기도 있었는데, 연어나 참치와 같은 물고기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고급 물고기는 간부들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 소련에서 배급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도, 간부들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가 있었습니다.